

# 말씀의 샘

## 아브라함과 예배공동체2 (히브리서 11:8~10/13~16)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Chartrre)는 1980년 3월에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폐수(부)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악하며 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고향을 치며 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겨 1964년 노벨문학상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입원한지 한달 만에 몸이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이렇게 신문에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샤르트르는 그의 실존주의적 철학을 담고 있는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속에 존재를 이어가다가 우연하게 죽는다.” 그에게는 정말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보았고 예배를 통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갔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법도 질서도 없는 부족시대, 자기 영역 터전을 중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경계하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의 여정을 두려움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예배하고 다음 장소를 알아야하니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는 현실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다렸던 이삭 약속도 성취했습니다. 걱정했던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왕과 군대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지에 대한 불안함도 없게 되니 것입니다. 창세기 21: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보통 이렇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실함이 없어지기에 예배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룬 아브라함이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좀 더 자세히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입령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배를 통해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바뀐 시선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능력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큰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하나님!” 하고 찾을 때에 그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란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도록 하는 예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포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예배보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예배가 끝나면 ‘아, 난 갈 곳이 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것이 바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고, 마음도 분주하고 여유도 없고... 천국을 마음에서 빼앗겨버렸고, 천국을 소망하고 생각할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간신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또 치열한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시선은 치열한 삶의 현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너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 신경쓰고 있는 문제들보다 비중이 적게 느껴집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먼 미래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할 현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사실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그치게 할만큼 파워풀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겪는 근심과 문제보다 상상하기 힘든 핍박도 다 이겨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의 집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사를 가게 될 집을 보고 계약하고 나면 벌써 꿈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집을 어떻게 고치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저렇게 꾸며야지 하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이 충분하답니다. ‘과연 내가 있을 곳도 있을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만나고 싶던 예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예수님과 항상 만날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될 때부터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두란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영광스럽고도 능력있는 영적예배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 2016. 2. 07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1. 2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사기 4장 1~9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 믿음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